충청일보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지역 사회 안전 책임진다

박보성 기자 | 승인 2024.05.21 14:32

2024년 캠퍼스순찰대 발대식 갖고 지역사회와 합동 순찰 실시...매주 월~목 순찰



▲ 캠퍼스_순찰

충남도립대학교 경찰행정학과가 지역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힘을 뭉쳤다.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는 지난 20일 '2024년 캠퍼스순찰대 발대식'을 열고 청양군청, 청양경찰서, 자율방범대원 등과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캠퍼스순찰대는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대학 캠퍼스와 기숙사 주변 및 통학로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해 매년 수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이다.

순찰 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시간대 조를 짜서 순찰하는데, 관할 경찰서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수행한다.

올해는 지역 자율방범대와의 협력과 지원까지 더해져 이른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

실제 충남도립대 캠퍼스순찰대는 순찰활동 중 거동이 수상해 보이는 청소년을 발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자동차 절도범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례도 있다.



▲ 캠퍼스_순찰

캠퍼스순찰대에 참여한 김해은 학생(1학년)은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그 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권정훈 경찰행정학과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동기를 부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는 소규모임에도 매년 10명 내외의 경찰공무원 최종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충남권의 대표적인 경찰공무원 양성학과로 거듭나고 있다.
/내포=박보성기자



박보성 기자 bakin114@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